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대 중국 투자와 무역 추세의 변화*

백 승 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2000년대 들어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1990년대 후반 감소했던 일본의 중국 투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이 일본의 제조업 생산기지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 증가하는 일본의 중국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중국투자는 아직까지는 동남아에 대한 일본투자와 대체관계에 있지는 않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증가와 더불어 일본과 중국간의 무역 규모도 확대되고 있고 그 구성 또한 바뀌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한국과 대만에 대한 수출구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핵심부품을 공급받는 조립생산기지라는 성격이 강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중국, 일본, 직접투자, 무역, 수출상품 편중도

* 이 논문은 2002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2-003-B00131).

I. 머리말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액과 외자유입액은 빠른 속도의 팽창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계속되는 미국-일본-동아시아를 잇는 IT 생산 네트워크의 팽창은 중국의 경제 팽창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지속적 성장의 주요한 버팀대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쌓여가는 사회적 문제가 많음에도 중국의 체제통합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새로운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편입이 가속화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최근의 중국 경제성장이 동아시아 내의 IT 연계망의 확대심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모델을 일본을 정점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적 생산네트워크 속의 하위생산자로서의 편입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차원의 ‘다층적 하청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비교·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은 이 지역 내에서 일본을 정점으로 하는 생산의 확장을 통해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성장, NIEs의 성장, 동남아시아의 성장, 중국과 베트남 등 구사회주의권의 성장이라는 네 단계를 거처 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코지마(Kojima, 1995)는 이전 시기 동아시아 내의 국제적 분업구조의 형성을 ‘날아가는 기러기 모델’이라는 아카마츠의 모델을 빌어와 설명한 바 있다. 아리기(Arrighi et al., 1993) 등은 이보다는 훨씬 더 수직적 위계구조로 구분되는 ‘다층적 하청네트워크’가 이 지역에서 광범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버켓과 하르트-란스버그(Burkett and Hart-Landsberg, 2000) 또한 수직적 위계적 구조 속에서 동아시아의 생산네트워크의 구조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논의들은 동아시아 모델의 형성과 확장과정에서 일본자본의 대외적 팽창이 갖는 직·간접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 또한 이런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분업구조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중국 투자의 증가에 따라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에 관심을 갖는 연

구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위의 그림 1에서 살펴보듯이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서 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되었다. 이런 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분야가 주도하였으며 (Zhang, 1998),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해외투자가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면서 제조업 분야 투자가 동아시아로 집중되는 더 큰 차원의 변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으며 (Machado, 1995), 그런 점에서 이를 동아시아 내의 중화경제권의 변화 속에서 맞물려 이해하려는 논의 또한 제기되었다 (Taylor, 1996). 그렇지만 1990년대 초·중반의 일본의 대 중국 투자는 외형상 같은 시기 대 중국 투자가 증가한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었는데, 이 때문에 이 시기 일본의 대중투자의 전체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간접적 형태로 진행되는 투자 또는 투자의 기반의 확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백승욱, 1999). 이러한 간접적 투자에는 정부의 ODA 공여를 통해 일본 투자에 우호적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 (Söderberg, 1996; 奥邨彰一, 1998), 홍콩을 통한 우회 투자 (Chen and Wong, 1997) 이나 홍콩의 화인네트워킹을 활용한 투자 (Sawada, 1998), 직접투자 진출을 위한 종합상사와 은행의 사전정지작업 (Delapierre and Milelli, 1999) 등이 포함된다. 1990년대 후반 대 중국 투자의 감소기를 거친 후 2000년대 들어서 일본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1990년대 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에 따른 공급력 약체화와 동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IT 붐이라는 요인, 그리고 일본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작용하였다 (Cassidy, 2002; Hilpert and Hoak, 2002; 木村福成 外, 2002; 馬黎明, 2003; 王曙光, 2003).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일본의 대 중국 투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일본과 동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연결하는 국제적 분업구도 상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 또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을 세계시장에 연결시켜온 주요한 역할은 주로 홍콩 중심의 중소기업 화교자본이 주도해 왔다 (陳文泉, 1996; Shambaugh, 1995; Chai et al., 1997). 중국으로 생산을 이전한 화교자본들은 핵심기술과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고 그 생산품은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동아시아 내 국제

분업구조의 틀 속에 들어있었는데, 이 생산네트워크가 중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또한 이러한 동아시아 내 국제분업구조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다. 이것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적 연관고리가 형성되는 첫 번째 계기였다.

그 두 번째 계기는 1990년대 들어서 세계 각국의 초국적자본 또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여가고 있는 가운데 직접 일본자본이 중국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심화해가는 속에서 나타난다. 특히 양국 사이의 관계는 1990년대 초 일본의 대대적 대중투자에 따라 급속히 긴밀해지다가 1990년대 후반 들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후 2000년대 들어 다시 일본의 대중투자가 늘면서 관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경제관계는 이후에도 더욱 심화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새로운 일본의 대 중국 투자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이 양국간의 무역구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 이런 일본의 대 중국 투자의 증가가 기존의 일본의 동아시아 내 수직적 분업구조의 중요한 한 축이던 동남아시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 글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관계의 초점을 주로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와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구조의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의 외자도입과 일본의 중국투자

1. 중국의 외자유입 현황

1990년대 말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흐름은 중심부국가에서 ‘신흥경제’로 이동하던 흐름이 대폭 줄어들고, 주로 중심부 국가들 사이의 초국경적 인수·합병(cross-border M&A)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부터 중심부 국가들 사이의 금융투자를 주도한 초국경적 M&A의 흐름은 2000년에 정점에 이른 후 빠르게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발전도상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도에 비해 9% 증가하였다(선진국으로

유입된 직접투자는 25% 감소)¹. 그러나 이처럼 발전도상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고, 특히 투자는 중국으로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도 투자가 감소하지 않은 예외적인 지역이었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외자유입은 크게 늘고 있다(UNCTAD, 2004). 세계 투자의 흐름이 금융형 투자와 제조업 투자 두 극으로 나뉘는 가운데, 중국이 제조업 투자의 핵심 지역으로 위치를 공고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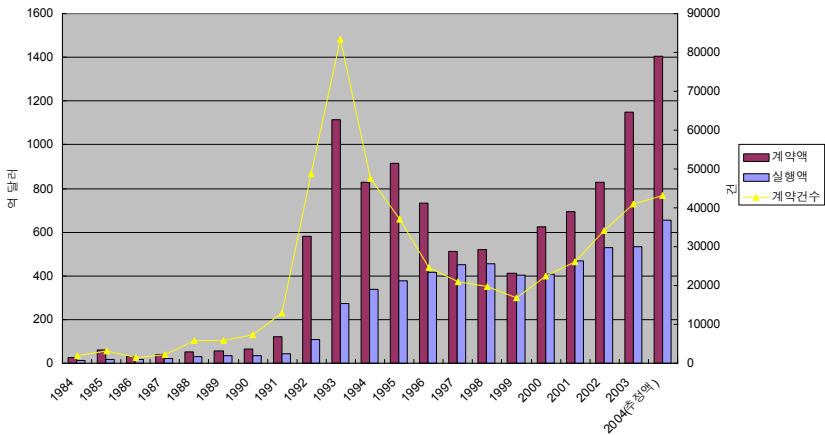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중 발전도상국에 유입되는 투자의 흐름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 주로 한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아시아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중 중국과 ASEAN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 10.9%와 75.6%에서 2001년에는 53.7%와 22.3%로 크게 역전되어 갈수록 세계 자본의 주요 투자처로서 중국의 위상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今井宏 外, 2003: 43). 2000년대 들어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한 결과 2003년에 중국은 535억 달러로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9.6%를 유입하여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러 사실상 세계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떠올랐다(UNCTAD, 2004: 367-370).²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주로 홍콩 등의 화교자본에 의존하고 있던 1980년대 말까지는 중국의 외자 이용에서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해외차관의 중요성이 더 컸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소규모 투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2년 중국이 대외개방의 폭을 넓힌 이후 홍콩 화교자본 이외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

-
1. 세계 총외국인직접투자 중 선진국에 유입된 투자의 비율은 1992-1997년 시기에 평균 58.1%에서 1998년에 68.4%로 증가한 후, 2000년에 79.8%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 그 비율은 감소하여 2003년에는 65.5%까지 떨어졌다(UNCTAD, 2004: 367에서 계산).
 2. 2002년과 2003년 모두 외국인직접투자 최대 유입국은 룩셈부르크였으나, 이는 장부상의 기업인수합병의 결과로, 직접투자가 수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UNCTAD, 2004). 한편 미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에 3,140억 달러(세계 총외국인직접투자의 22.6%)로 최고에 달했으나, 2003년에는 300억 달러(세계 총외국인직접투자의 5.3%)로 2000년의 9.5% 수준으로 급락하였다(UNCTAD, 2004: 367에서 계산).

이 이용하는 외국자본의 핵심부분이 되었다. 1988년 중국에 유입된 해외차관과 외국인직접투자는 각각 64억 9천만 달러와 31억 9천만 달러로, 그 비율이 2.0:1이었는데, 1992년에는 그 비율이 1:1.4로 역전되었으며, 그 비율은 급격히 상승해 1998년에는 110억 달러와 454억6천만 달러로 1:4.1의 비율로 벌어졌다.³

그림 1.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



출처: 『中國統計年鑑』 각년도; 중국상무부 통계(www.fdi.gov.cn 검색일: 2004년 10월 1일)

그림 1은 중국의 대외개방 이후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중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가 시기별로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92년을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난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 후반 감소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변동의 폭은 실제투자액보다 미래의 실제 투자 지표를 나타내는 계약액과 투자건수에서 더 커진다. 계약액수는 중국의

3. 『中國統計年鑑』 각 연도에서 계산.

경기침체와 동아시아 전반의 위기조짐을 반영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줄어들다 1990년대 후반 급속히 줄어든 후, 2000년을 기점으로 몇 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계약액 기준으로 이미 1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⁴ 2000년대 들어서 계약액과 실행액의 격차는 다시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에도 나타난 현상이며, 그 당시에 이는 1990년대 후반 투자 감소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비해 중국경제의 제도적 환경이 바뀐 현 상황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계약액과 실행액 격차는 이후의 지속적 실행액 유입의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관찰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투자 규모의 변화이다. 직접투자 계약건수와 계약액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이후 계약건당 투자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건당 91만 달러, 1993년 건당 134만 달러이던 투자 규모는 1999년에는 244만 달러, 2003년에는 280만 달러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투자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투자규모가 커지는 것은 선진국의 초국적기업의 중국진출이 늘고 있는 점과,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의 세계적 IT산업 붐을 탄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투자에 힘입어 중국의 IT 하드웨어 생산은 2000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성장하였다. IT 하드웨어 생산의 핵심인 전자통신 분야는 1997년 이후 중국 제조업 성장의 핵심이어서, 1998-2000년 시기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 14%의 두 배인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보였다. 전자통신을 포함하는 전기전자 부문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의 8%에서 2000년 16%로 상승하였는데, 전자통신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외국인 투자회사(외자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2000년의 시점에서 전자통신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의 비중은 생산액의 45%이며, 수출액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74%로, 주로 중국의 IT 부문

-
4. 2004년 추정액은 1월에서 8월까지의 실제 유입 액수(중국상무부 통계)를 기초로 해당연도 총액을 추정한 것이다.
 5. 현재 중국에는 전자통신업을 중심으로 모토롤라, 노키아, 에릭슨, GE, 델 등 세계 500대 기업 중 400여 개가 진출해 있다(金山權, 2002: 343).

해외수출을 이 전자통신 분야 외국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투자분이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木村福成 外, 2002: 4-6).

<표 1> 주요 투자국별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억 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8월)
홍콩	25.79	77.06	174.45	198.23	201.85	208.52	206.32	185.08	163.36	155.00	167.17	178.61	177.00	138.28
일본	6.09	7.48	13.61	20.86	32.12	36.92	43.26	34.00	29.73	29.16	43.48	41.90	50.54	37.75
대만	4.72	10.53	31.39	33.91	31.65	34.82	32.89	29.15	25.99	22.97	29.80	39.71	33.77	23.69
한국		1.20	3.81	7.26	10.47	15.04	21.42	18.03	12.75	14.90	21.52	27.21	44.89	46.61
싱가포르	0.58	1.26	4.92	11.80	18.61	22.47	26.06	34.04	26.42	21.72	21.44	23.37	20.58	14.52
미국	3.30	5.19	20.00	24.91	30.84	34.44	32.39	38.98	42.16	43.84	44.33	54.24	41.99	30.73
유럽	2.86	3.23	68.00	16.60	22.66	30.13	44.39	43.09	47.97	47.65	44.84	40.49	42.72	
버진군도		0.04	0.13	1.28	3.03	5.37	17.17	40.31	26.59	38.33	50.42	61.17	57.77	49.77
케이맨군도					0.12	0.53	1.58	3.24	3.78	6.24	10.66	11.80	8.66	17.25
총액	46.66	112.92	277.71	339.46	378.06	421.35	452.57	454.63	403.19	407.15	468.78	527.43	535.05	435.59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8월)
홍콩	55.3	68.2	62.8	58.4	53.4	49.5	45.6	40.7	40.5	38.1	35.7	33.9	33.1	31.7
일본	13.1	6.6	4.9	6.1	8.5	8.8	9.6	7.5	7.4	7.2	9.3	7.9	9.4	8.7
대만	10.1	9.3	11.3	10.0	8.4	8.3	7.3	6.4	6.4	5.6	6.4	7.5	6.3	5.4
한국	0.0	1.1	1.4	2.1	2.8	3.6	4.7	4.0	3.2	3.7	4.6	5.2	8.4	10.7
싱가포르	1.2	1.1	1.8	3.5	4.9	5.3	5.8	7.5	6.6	5.3	4.6	4.4	3.8	3.3
미국	7.1	4.6	7.2	7.3	8.2	8.2	7.2	8.6	10.5	10.8	9.5	10.3	7.8	7.1
유럽	6.1	2.9	24.5	4.9	6.0	7.2	9.8	9.5	11.9	11.7	9.6	7.7	8.0	
버진군도	0.0	0.0	0.0	0.4	0.8	1.3	3.8	8.9	6.6	9.4	10.8	11.6	10.8	11.4
케이맨군도	0.0	0.0	0.0	0.0	0.0	0.1	0.3	0.7	0.9	1.5	2.3	2.2	1.6	4.0
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中國統計年鑑』 각년도; 중국상무부통계(www.fdi.gov.cn: 검색일 2004.10.1.)

다음으로 표 1에서는 주요 투자국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 추세에서 우선 관찰되는 것은 홍콩이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 그 비중이 줄곧 줄어들어, 1990년대 중반까지 전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데서 이제는 전체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중국에 투자하는 홍콩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1/3 정도가 다른 지역의 우회투자임을 고려하면 실제 홍콩투자의 비중은 훨씬 더 줄어들었을 수 있다. 홍콩의 투자와 더불어서 대만과 싱가포르 등의 화교들의 투자 또한 19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화남(광둥성과 푸젠성)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주도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2000년대 들어 홍콩과 이들 화교자본의 투자액수의 비중을 합하더라도 전체액수의 절반 이하의 비중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또한 주목된다.

그 다음으로는 여타 국가들의 투자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투자가 감소하여 1998년에는 절대액에서도 하락하여 비중이 2% 이상 떨어진 데 비해 미국의 투자 비중이 상승한 점이 눈에 띄며, 2000년대 들어서에는 이 추세와는 반대로 일본의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데 반해 미국의 투자 비중이 하락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2003년부터 한국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데, 한국의 대중투자는 2004년 8월까지 이미 2003년의 총투자액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고 있다.⁶

2. 일본의 투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후반 감소한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0년대 들어 다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표 2는 일본의 국가별 해외

6.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서 1997년 이후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점은 버진군도와 케이멘군도 같은 조세도피처의 투자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점이다. 두 지역을 합한 수치는 최근 들어 15% 수준에 이르고 있어, 홍콩에 이은 제2의 투자원이 되고 있다. 이 조세도피처의 투자의 절반 이상은 대만투자로 알려져 있다(ジェトロ, 2003: 162). 이를 포함할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외자유입중 대만의 투자의 비중은 10%대에 이르러 미국, 일본, 유럽과 유사한 수준에 올라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1990년대 일본 해외투자의 60% 이상은 미국과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중국과 동남아 지역은 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지만 지속적으로 1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해외투자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됨을 시사해준다. 한편에서 미국과 유럽에는 시장개척과 현지판매를 위한 대형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동아시아 지역에는 국제적 분업구조 고리를 확대하려는 중소형의 제조업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미국과 유럽에 대한 투자가 일본의 판매시장 확대의 대상이라면, 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생산기지라는 특성을 더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백승욱, 1999; Machado, 1995).

<표 2> 일본의 국가별 해외투자

(단위: 억 엔)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중국	1,954	2,683	4,319	2,828	2,438	1,377	849	1,112	1,819	2,152	3,553
홍콩	1,447	1,179	1,106	1,675	853	789	1,088	1,045	436	253	447
ASEAN4	2,524	3,329	3,299	5,575	6,989	4,276	3,302	2,264	3,201	1,857	2,188
싱가포르	735	1,101	1,143	1,256	2,238	832	1,158	505	1,435	917	364
미국	16,936	18,016	21,845	24,789	25,486	13,237	24,885	13,448	8,196	10,299	11,955
유럽	9,204	6,525	8,281	8,305	13,749	18,039	28,931	26,989	13,263	18,807	14,268
총액	41,514	42,808	49,568	54,094	66,229	52,413	75,292	54,193	40,413	44,930	40,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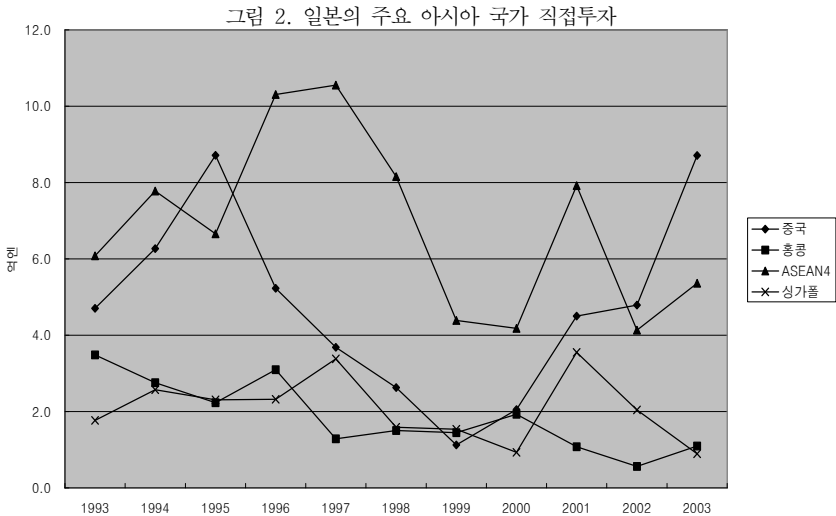
주: ASEAN4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1995년 이전은 필리핀 제외)

자료: 『日本統計年鑑』 각 연도; 2003년은 일본재무성통계(www.mof.go.jp 검색일: 2004. 9. 30.)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중국	4.7	6.3	8.7	5.2	3.7	2.6	1.1	2.1	4.5	4.8	8.7
홍콩	3.5	2.8	2.2	3.1	1.3	1.5	1.4	1.9	1.1	0.6	1.1
ASEAN4	6.1	7.8	6.7	10.3	10.6	8.2	4.4	4.2	7.9	4.1	5.4
싱가포르	1.8	2.6	2.3	2.3	3.4	1.6	1.5	0.9	3.6	2.0	0.9
미국	40.8	42.1	44.1	45.8	38.5	25.3	33.1	24.8	20.3	22.9	29.3
유럽	22.2	15.2	16.7	15.4	20.8	34.4	38.4	49.8	32.8	41.9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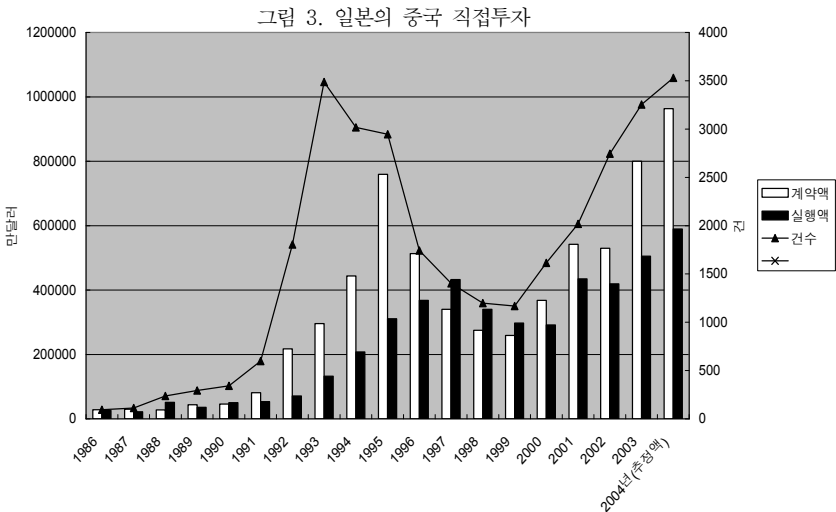
2000년 말 기준으로 일본 해외현지법인수 중 아시아의 비중은 그 투자액 수 비중보다 훨씬 높은 48.3%를 차지하며, 제조업은 그보다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 60.1%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런 특징은 잘 드러난다. 종업원 수에서도 아시아 현지법인 종업원은 204만 명으로 전세계 투자기업 종업원 수의 59.0%를 차지하는데, 그 중 89.5%인 183만 명이 제조업에 고용되어 있다 (今井宏 外, 2003: 160-63). 제조업 투자액이 비제조업 투자액을 앞선 1999년을 예외로 하면 1996-2003년 사이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중 제조업투자 비중은 늘 30-45% 사이였는데,⁷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아시아 지역의 이런 제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이다. 투자액 비중에 비해 현지법인수와 종업원수, 그리고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중소규모의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출처: 표 2에서 작성

7. 일본 국제협력은행 자료에서 계산 (www.jbic.go.jp 검색일: 2004. 10. 1).

그림 2는 표 2의 자료 중 아시아 지역 일본의 주요 투자대상 국가별로 1990년대 초 이후 일본의 해외투자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아시아 주요 투자 지역은 크게 중국과 ASEAN4⁸로 나뉘며, 두 지역의 각각의 비중은 서로 우세를 바꾸어가면서 일정한 합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1993년 이후 증가하던 두 지역 투자는 1995년에 중국이 ASEAN4를 앞섰다가 이후 계속 빠르게 하락한 반면, ASEAN4 지역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났으며,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 또한 중국투자와 비슷한 속도로 하락하였다. 이 두 지역에 대한 투자는 1999년과 2000년경 바닥까지 떨어진 후 다시 증가하는데, ASEAN4 지역에 대한 투자가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하는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나 2002년부터 중국투자가 ASEAN4를 앞서고, 2003년에 그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출처: 『日本統計年鑑』 각년도; 2004년은 일중투자촉진기구 자료
(www.jcipo.org 검색일: 2004. 10. 6.)

8. 빠른 성장을 보이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말한다.

우리는 이로부터 일본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에서 아직까지 중국과 ASEAN4 지역은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으며,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ASEAN4에 비해 중국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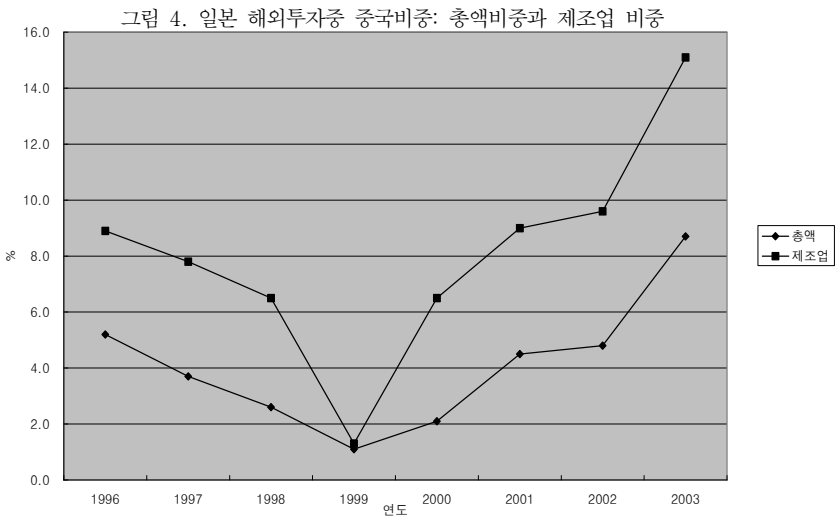
그림 3은 일본의 중국 직접투자의 추세를 살펴 본 것이다. 일본의 중국 직접투자에는 크게 세 번의 붐이 나타난 바 있다. 1차붐은 1988년에 일본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중일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된 이후 1980년대 말까지의 시기였고,⁹ 2차붐은 1993-1995년의 대대적 진출기, 3차붐은 2000년 이후 최근까지 IT 붐을 탄 시기이다. 그 중 1차붐 시기의 투자는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격적인 투자붐이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초였다. 특히 이 시기는 표에서 읽을 수 있듯이 투자액수 증가에 비해 투자건수가 더 크게 증가해서, 그 결과 건당 투자 규모가 작아진 시기였는데, 이는 다시 말해 주로 이 시기의 투자를 주도한 것이 중소기업이었음을 뜻한다.¹⁰

1990년대 초 일본의 중국 투자붐 이후 일본투자는 투자건수, 투자계약액수, 실제투자액수 순으로 줄어든다. 투자건수는 줄었지만 계약액수는 늘어난 1994년과 1995년은 오히려 건당 투자규모가 커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가 준 것은 아니지만, 1995년 이후부터는 투자계약액이 급속히 줄어들고, 그에 따라 실제투자액도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줄어들기 시작한다.¹¹

1995년 이후 일본의 대중투자가 줄어든 것은 역플라자라고 부르는 엔저현상이나 일본의 전반적 해외투자 감소 때문은 아니었다. 앞의 표 2에서 알 수

9. 1987년 이전 일본 제조업의 중국진출은 별로 진행되지 않아, 제조업이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액수는 서비스 투자액의 1/6에 지나지 않았다(Hilpert and Hoak 2002: 115).
10. 일본의 중국투자에서는 일종의 간접투자로서 정부개발원조(ODA)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대중국 ODA에 대해서 张跃东·戚红过(2001), 于潇(2002), Söderberg(1996) 등을 볼 것.
11. 중국과 일본의 투자집계 방식의 차이 때문에 여기서의 추세는 앞의 표 1의 중국측 통계와 차이가 난다. 중국의 통계에서는 일본의 대중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이며, 이후 3년간 감소추세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있듯이, 1995년 이후 일본해외 투자의 절대액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은 중국뿐이었다. 그처럼 중국에서만 예외적으로 투자가 감소한 원인으로 중국의 내부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1993년 이후 긴축정책으로 중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고, 또 과잉투자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5년이라는 시점이 문제된 것은 중국이 1994년에 발표한 수입 기계류에 대한 관세우대 정책 폐기와 부가가치세 등 세제의 강화 때문이었는데,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할 계획을 지닌 많은 기업들이 서둘러 시간을 앞당겨 한꺼번에 진출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Lin, 1998).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동남아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에도 투자선을 확대하기 어려웠다는 일본 국내의 요인과 중국에서 주5일제 도입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했다는 점(馬黎明, 2003: 144), 중국내의 경기쇠퇴와 시쟁경쟁 과열, 금융불안정에 따른 일본 투자자들의 투자의욕 감소와 일본의 해외투자조정 등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劉昌黎, 2000).



출처: 鈴木まゆみ(2004), 齊藤啓(2003)와 그 외 『開發金融研究所報』 자료에서 구성.

일본의 대중투자는 중국과 미국과의 WTO 가입 협상이 타결된 2000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후 투자의 증가 속도는 급속히 빨라지며 특히 2003년 이후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투자 동향은 제조업 부문을 떼어내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그림 4는 일본의 해외투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총액과 제조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제조업을 떼어내 살펴볼 경우 중국이 일본의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보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제조업 투자의 비중은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일본투자의 비중이 하락한 시기인 1990년대 후반에는 더 붙어 하락하였다. 특히 1999년에는 제조업 투자의 감소가 대폭적이어서, 일본 해외투자 중 중국의 비중보다 제조업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대폭 하락하여 양자의 비중차이가 거의 사라질 정도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제조업 투자는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일본의 전체 제조업 투자 중 10%선에 접근하고, 2003년에는 15%에 이르러, 중국이 일본의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자리를 되찾아 가고 그 비중 또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차 투자붐 시기인 2000년대 초 일본의 대 중국 투자의 특징 중 하나는 투자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1차에서 2차 투자 붐으로 이어진 시기인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시기에 건당 투자액이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수준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음에 비해, 일본의 대중 투자가 감소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오히려 평균투자액 규모는 200만 달러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3차 투자 붐이 나타나는 2000년대에도 대체로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250만 달러 이상으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초기의 투자가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된 반면, 최근의 투자는 자본집약적 부문을 동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최근 투자가 IT 분야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중국투자가 확대되면서 중국에 설립되는 일본의 해외생산 거점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국제협력은행은 매년 해외진출기업의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¹² 이 자료에서 살펴보면, 일본기업의 해외 생산 거점 중 중국에 설립된 생산거점 수는 2000년 이후 미국을 앞질렀고, 2003년에는 ASEAN4의 생산거점 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鈴木まゆみ, 2004). 여타지역의 생산거점 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ASEAN4 지역에서 다소 완만한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데 비해, 중국의 생산거점 수는 그보다 빠른 수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 이는 신설되는 생산거점 수가 많음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기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현지에서 완성품을 제조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도 일부는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지만 주요한 대상은 중국 내수시장이 된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진출이 뒤늦은 편이며(Hilpert and Hoak, 2002: 181), 가전제품 산업의 경우 완성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지는 않다. 이미 1992년에 중국에 진출하는 이유로 내수시장 개척이 47.8%인데 비해, 값싼 노동력을 중시한 비율이 28.3%로 그 전해에 비해 중요성의 순위가 역전 된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기업의 대 중국 진출은 중국 내수시장의 개척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왔다(大原盛樹, 1998). 2002년 경제산업성의 조사에서도 중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보는 기업이 80.6%로, 미국의 73.4%보다 높게 나올 만큼 일본자본의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게 나타나며(經濟産業省, 2003: 79), 이것이 지속적인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일본이 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의 개척과 동남아시아 투자선의 유지에 힘을 쏟으면서 상대적으로 대 중국 투자가 감소하던 시기에 여타 국가들의 대 중국 투자가 늘어난 결과, 핵심 산업에서 중심부 국가 초국적 기업의 산업점유율이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높아졌고, 1997년에 이르르면 중국의 시장은 전면적인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기

12. 이 조사에서 생산거점 수는 실제 설립된 생산거점 수가 아니라 표본조사에 나타난 수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일본의 해외진출 조사를 수행해 온 기관들 중국 제협력은행의 조사가 응답률이 가장 높고, 같은 방식의 조사를 15년째 반복적으로 수행해왔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고, 시간적 추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잘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간 경쟁은 심해졌다(岳健勇, 2001: 71-72). 이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일본의 완제품 생산의 노력은 예상과 달리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의 투자는 일본의 디자인과 설계 하에 중국 현지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고용해 생산을 하여 일본의 내수시장에 소비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섬유산업에 진출한 기업들이 그 대표적 형태이다. 이런 유형의 기업은 초기일본투자의 상당수를 점하여, 이후 중국의 섬유제품이 일본시장의 최대 상품이 되는데 기여해왔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중심이 점차 중국 토착기업 쪽으로 이전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ジェトロ,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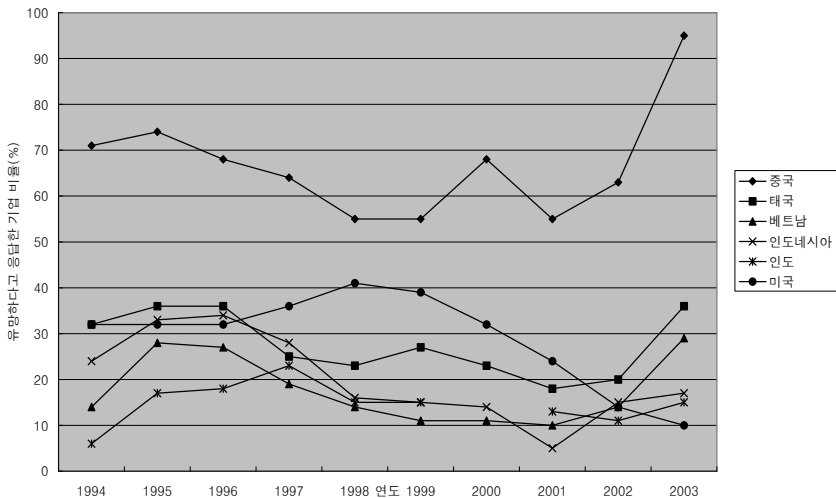
세 번째 유형은 완제품이 아니라 핵심부품, 특히 정밀도가 요구되는 전자부품들을 제조하여 중국내수시장과 해외시장에 공급하는 기업들이다. 전기전자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은 기존의 동아시아 내의 분업구조의 중심축으로 고부가가치 부문을 점유해 왔다. 이에 반해 핵심부품에서 일본기업의 우위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TV 생산의 경우 CRT(음극전자관)는 중국 자체기술에 의한 생산 비중이 매우 낮고, 시장 수요 중 27%는 일본과의 합자기업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일본에서 기술도입기업까지 합하면 그 비중은 77%로 높아진다. 냉장고와 에어컨의 핵심부품인 컴프레서의 경우도 중일합자기업이 중국 내 생산의 90%를 공급하고 있다(Hilpert and Hoak, 2002: 187-191). 이처럼 완제품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핵심 부품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일본 투자기업의 경우는 구미기업에 비해 수출형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생산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기준으로 수출형 기업을 분류할 경우 아직도 중국 진출 일본기업의 51.3%는 수출형 기업이며, 내수비중이 70%가 넘는 내수형 기업은 36.8%에 지나지 않는다(ジェトロ, 2003: 24).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의 검토에서 우리는 일본의 대 중국투자가 현재 주로 세 번째 유형인 핵심부품 공급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후 살펴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관찰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으로 유입되는 일본자본의 투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하나의 쟁점은 일본이 향후 ASEAN 지역으로부터 중국으로 생

산을 재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이후 동아시아 내에서 상호 연관된 경제구조의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되며, 일본의 대 중국 투자의 성격이 상당 정도 그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위기 이후 동남아시아로 유입되는 자본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다가 일본 또한 장기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동남아시아의 투자가 중국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공동화’의 위기감이 이 지역에서 크게 고조되었다. 이런 위기감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급히 서두르려는 시도 속에서도 발견된다.

이와 관련해 그림 5는 매년 일본의 국제협력은행이 설문조사한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일본의 해외진출 기업들이 중기적(향후 3년)으로 유망하다고 본 국가라고 응답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중국이 가장 전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일관되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그 응답 비율은 1990년대 후반 60% 이하로 다소 하락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2003년의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중국이 유망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림 5. 일본 해외기업이 중기적으로 유망하게 전망하는 국가



출처: 丸上貴司·春日剛·齊藤啓·鈴木まゆみ(2004)에서 구성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발견되는 특징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진출한 대표적인 국가인 태국에 대해서 유망하다는 응답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새로운 진출지로서 베트남을 거론하고 있는 경우도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2003년 조사에서는 유망투자지로서 미국보다 다소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 향후 중국으로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이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세안 지역을 완전히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일본기업 중 아세안에서 철수하여 중국으로 이전을 계획중인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대부분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었고, 이 조사의 응답기업의 98.7%는 아세안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 지속할 계획이라고 하였다(木村福成 外, 2002: 70-76).¹³ 다만 아세안 지역에서는 신규투자의 계획이 있는 기업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현재 설비를 유지하거나 확장할 계획이며, 신규투자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중국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국지역의 일본투자 진출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대 들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국가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일본의 주요 관심 국가인 태국의 경우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1998년의 75억 달러 수준에서 2003년에는 18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UNCTAD, 2004: 370). 그럼에도 태국에 대한 일본의 향후 투자 전망이 유지된다는 것은 제조업 생산지로서 태국이 갖는 중요성이 유지되는 동시에 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의 상황과는 다소 다른데, 중국의 경우 일본의 투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여타 국가의 투자들도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일본투자가 중국에 대해서 지니는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남게 된다.

13. 현재까지 일본 기업 해외투자 잔고기준으로 보면 NIEs 지역에 249억 달러, ASEAN4 지역에 188억 달러, 중국에 125억 달러로, 대체로 40%, 30%, 20%선을 유지하고 있다(ジェトロ, 2003: 22-23). 일본은 이중 어느 한 지역에서 발을 빼기보다는 각 지역을 조정하면서 사업기반을 유지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 내의 일본의 투자가 완전한 집중보다 다소 분산된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택하고 있는 기술개발의 방식 때문이다. 중국의 가전업체를 예를 들면 기술개발의 요체는 혁신적 핵심기술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존 부품이나 기간 장비를 외부조달 한 후, 이들 부품장비를 조립하여 시장에 적응하여 생산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經濟産業省, 2003: 86-90). 이 때문에 일관생산에 의거한 자체 부품생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취약한 편이고, 주로 부품은 외부업체나 해외에서 공급하는 경향이 크다. 이 때문에 현지 일본기업의 경우도 해외수출형 기업의 경우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현지 내수판매용일 경우는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이원화체제를 운영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北眞收, 2004: 30-36).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연구개발 분야 투자가 여전히 ASEAN4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經濟産業省, 2003: 97).

III. 무역구조

1. 전반적 추세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중국의 총무역액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거래가 빠르게 늘어나, 일본은 1993년 이후에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동아시아 내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일무역구조의 변화는 때로는 일본 직접투자의 유입보다 더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일본은 2003년에 중국총무역의 15.7%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에서는 18.0%로 1위, 수출에서는 13.6%로 미국과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¹⁴ 일본의 경우에도 중국은 2001년부터 한국과 대만을 앞서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수출상대국이 되었으며, 2002년에 미국을 앞질러 일본의 최대 수입상대국이 되었다. 2003년 중국은 일본총수출의 13.4%와 총수입의

14. 『中國統計年鑑 2004』.

16.9%를 차지하였다.¹⁵

중국의 해외무역에서 특이할 점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수입총액에서 외자기업의 비중은 이미 1996년 50%선을 넘어섰으며, 수출에서도 그 수치가 2001년 50%를 넘어섰다. 2002년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의 비중은 53.2%였으며, 각기 수출 52.2%, 수입 54.3%로 나타났다(ジェトロ, 2003: 159).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의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아져서 수출은 58.7%, 수입은 67.5%를 외자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일본투자 기업이다(ジェトロ, 2003: 12).

최근의 무역증가에서도 외자기업의 역할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2년 수출 증가액이 국유기업의 경우 8.5%인데 비해 외자기업은 27.6%를 보였고, 수입에서는 국유기업이 38.8%로 높지만, 외자기업은 그보다 훨씬 높은 54.2%를 기록하고 있다(ジェトロ, 2003). 최근 중국의 무역에서는 수출증가세보다 수입증가세가 더 빠르는데, 이는 주로 외자계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외자계 기업의 수입이 급증하는 것은 중국에 유입되는 중간부품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동아시아 각지역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품목 중 가장 성장폭이 큰 상위 3품목은 사무용기기부품, 초소형 전자회로, 통신기기 부품 등 가공조립형 기계부품이다. 이는 중국이 다른 동아시아 지역에서 부품공급을 받아 최종조립국의 역할을 점점 더 많이 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經濟産業省, 2004: 162), 이러한 무역구조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기존 동아시아 국가의 특징과 유사성을 보여준다.

2. 중·일간의 무역구조

아래서는 일본과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통해 이런 전반적인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3에서 일본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추이를 살펴

15. 일본무역진흥회 자료(www.jetro.go.jp 검색일: 2004. 10. 30.).

보면, 수출시장으로서 미국의 절대적 비중이 높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동아시아 역내 수출시장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2년 현황으로 보면 한국과 대만 홍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차지하는 반면 중국이 그보다 한 단계 앞서가고 있고, 태국과 싱가포르의 수출시장의 비중은 한국, 홍콩, 대만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¹⁶

<표 3> 국가별 일본의 수출액

(단위: 백만엔, %)

	1985	1990	1995	1999	2002
총액	41,955,659	41,456,940	41,530,895	47,547,556	52,108,956
중국	2,991,151	883,510	2,061,960	2,657,428	4,979,796
한국	1,693,658	2,517,998	2,927,822	2,606,234	3,572,439
대만	1,204,790	2,234,470	2,709,586	3,276,252	3,281,188
홍콩	1,564,927	1,887,543	2,599,570	2,507,213	3,176,359
태국	487,606	1,315,373	1,849,932	1,284,801	1,648,577
싱가포르	924,516	1,546,624	2,157,607	1,854,167	1,774,536
독일	1,646,278	2,565,538	1,907,967	2,121,636	1,765,886
미국	15,582,715	13,056,598	11,332,952	14,605,315	14,873,326
	1985	1990	1995	1999	2002
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	7.1	2.1	5.0	5.6	9.6
한국	4.0	6.1	7.0	5.5	6.9
대만	2.9	5.4	6.5	6.9	6.3
홍콩	3.7	4.6	6.3	5.3	6.1
태국	1.2	3.2	4.5	2.7	3.2
싱가포르	2.2	3.7	5.2	3.9	3.4
독일	3.9	6.2	4.6	4.5	3.4
미국	37.1	31.5	27.3	30.7	28.5

출처: 『日本統計年鑑』 각 연도.

16. 1985년의 일본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 해의 수출에서 자동차, 선박, 영상 분야에서 대중 수출이 이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표 4> 일본의 대중수출 품목 비중

(단위: %)

		1985	1986	1990	1995	1999	2002
화학		5.7	6.9	12.3	9.3	12.9	12.5
플라스틱		2.8	3.6	3.5	3.0	4.8	4.5
금속 및 금속제품		28.3	31.6	19.4	14.2	10.9	10.5
철강		25.7	27.4	17.3	10.7	6.6	7.3
기계기기	일반기계	57.0	50.2	46.2			
	원동기				27.8	21.2	20.9
	사무용기기	0.9	2.4	1.7	2.7	2.5	1.5
	전기기기	1.0	1.2	1.1	2.1	3.2	3.2
	영상				21.9	25.5	26.8
	반도체 등 전자부품	8.6	1.5	3.9	2.9	0.3	0.2
	수송기기	1.3	1.4	3.3	3.2	7.0	10.5
	자동차				4.2	3.4	6.0
	자동차부품	12.2	6.4	2.3	2.1	1.6	3.7
	선박				1.2	1.3	2.2
정밀기기	3.0	1.2	0.9	0.1	0.1	0.0	
과학광학기기				2.0	3.5	4.1	
기타	2.0	1.5	1.5	1.9	3.2	4.0	
전체	6.1	5.7	9.5	8.3	9.6	1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990년까지 자동차부품은 별도항목으로 집계되지 않아 자동차 항목 속에 포함되었다. 일반 기계, 전기기기,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의 항목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日本統計年鑑』 각 연도에서 구성.

표 4에서는 주요 품목별로 일본의 대중 수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 자체 생산이 증가하는 분야인 철강, 영상기기, 선박 등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반도체 등 전자부품 분야의 비중이 대폭 늘어나며, 화학과 정밀기기의 비중과 자동차 부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전기기기의 비중과 그 중에서도 반도체 등 전자부품 분야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앞서도 언급한 중국의 IT 산업 발전과 관련해 주목되는 내용이다.

표 5는 이러한 변화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기 위해서 주요한 부문별로 일본의 세계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각 산업부문의 대 중국 수출액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 표에서 보면 화학, 반도체등 전자부품, 그리고

과학광학기기 분야에서 중국이 일본의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1990년대 초반에 비해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표의 수치들은 일본의 수출에서 대중 수출의 비중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해당 상품의 비중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 특정 부문의 상품이 일본의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 6에서는 일본 특정 수출상품 편중도를 제시하였다. 이는 특정 부문 상품의 일본 총수출액 중 특정 국가의 해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본의 총수출 중 특정국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것이다.¹⁷ 이 표에서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또 유럽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독일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특정 수출상품의 편중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수출상품 편중도는 한 나라의 대일 수입구조에서 특정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일본에 더 의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표 3에서 제시되어 있는 국가별 일본 수출시장 비중이 작은 수치를 보이더라도(즉 수출시장으로서 그 국가의 중요성은 낮더라도) 일본이 그 상품을 전 세계에 판매한 수출총액에서 그 나라에 수출되는 특정상품의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편중도가 높아진다. 반대로 특정상품 총액이 해당상품의 일본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더라도 그 나라가 일본의 수출시장으로서 지니는 비중이 그보다 크다면 편중도는 낮아진다. 또 해당 국가 수출액중 차지하는 특정상품의 비중이 일정하더라도 일본이 세계시장에 판매하는 해당 상품의 총액의 변화에 따라 편중도는 변화할 수 있다.

일본수입품 구성 내용, 상품별로 일본의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이러한 특정 수출상품 편중도를 함께 살펴보면 특정 국가의 어느 분야에 일본 수출이 더 편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¹⁸

17. 여기서 특정수출상품 편중도 = (일본수출중 특정부문 해당국 수출액/특정부문 일본총수출액)/(특정국가 대상 일본 수출액/일본총수출액)이다. 이는 다시 표 4에서 제시된 특정상품의 수출품목 비중 × (일본총수출/일본의 특정품목 수출총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18. 편중도의 값이 1을 넘을 경우 일본의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나라의 비중보다 특

<표 5> 일본 수출품 중 주요 상품별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1985	1990	1995	1999	2002
화학	9.3	4.7	6.8	9.8	14.9
철강	23.6	8.4	13.5	11.4	18.9
사무용기기	1.6	0.3	1.5	2.8	5.4
영상기기	41.0	11.5	6.1	0.7	0.5
반도체 등 전자부품	3.4	1.5	1.7	5.0	13.6
자동차	4.5	0.3	0.9	0.6	2.1
자동차부품			1.4	2.1	5.1
과학광학기기	3.7	0.8	2.3	3.8	10.4
총액	7.1	2.1	5.0	5.6	9.6

출처: 『日本統計年鑑』 각 연도에서 구성.

표 6에서 우선 중국의 변화를 보면 영상기기의 편중도가 가장 빠르게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철강은 앞서 일본수입품중의 비중이 저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중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관찰되는 특징이다. 화학산업의 편중도 또한 높게 나오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편중도와 과학광학기기의 편중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상의 의미는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 평균적 수준에 비해 철강, 화학, 전자부품, 과학광학기기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대중국 수출교역이 훨씬 더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의 현 시기 산업화가 이들 분야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동아시아 다른 국가의 편중도를 살펴보면 이런 방향의 추론이 타당함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 핵심부품과 기술을 공급받아 산업화한 동아시아 NIEs, 특히 한국과 대만에서는 중국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이 관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은 철강과 반도체, 화학산업 분야 생산이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반도체, 화학에서 높은 상품 편중도를 보이고

정 상품이 일본 해당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다시 말해 특정 상품이 일본에 더 의존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제시된 표 6은 중국을 살펴보기 위한 몇가지 대표분야만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무역 비중은 높지만 제외된 분야가 있을 수 있다.

있고 지난 20년 사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만 또한 이 세 분야에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다만 철강에서의 편중도가 다소 낮고, 과학광학기기의 편중도가 한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일본 특정 수출상품 편중도 구조는 한국과 대만과 상당히 동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1990년대 말 이후 전자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외부에서 핵심부품을 공급받아 조립생산 기지로 전환되어가는 중국의 산업 구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 측면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 NIEs의 다른 두지역인 홍콩과 싱가포르는 지역적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홍콩은 중공업 토대가 약한데다 중국을 위한 교두보 역할로 전환함에 따라 주로 중국을 위한 중개무역의 역할에 치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 홍콩과 중국현지생산을 위한 전자 부품에 대한 편중성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화학과 철강 분야의 편중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소비재인 영상기기에 대한 편중성이 높게 나타난다. 영상기기에 대한 편중성이 높다는 것은 토착가전산업의 저발달의 결과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또한 전자부품에 대한 편중성은 높은 반면 화학이나 철강에 대한 편중성이나 과학광학기기에 대한 편중성은 낮고 사무용 기기에 대한 편중성은 높아서 산업구조나 일본과의 분업관계에서 한국이나 대만형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의 후후발 공업지역인 태국에서 오히려 한국이나 대만 유형과 더 가까운 특징들이 발견되어, 태국의 경우 화학, 철강, 전자부품에 대한 편중도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특화하고 있는 특징을 반영해 자동차부품의 편중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과학광학기기의 편중도는 낮아서 산업발전단계에서 다소 뒤쳐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독일의 편중도 구조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 두 지역 모두 사무용기기와 영상기기 같은 소비성 기기에서 일본상품에 대한 편중도가 높다는 점이 두드러지며 화학이나 철강의 편중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고, 전자부품에 대한 편중도도 일본의 해당국가 수출의 평균 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일본의 주요한 자동차 수출 시장인 동시에 생산 거점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편중도가 높게

<표 6> 각국별 일본 특정 수출상품 편중도

	1985	1990	1995	1999	2002	
중국	화학 철강 사무용기기 영상기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과학광학기기	1.3 3.3 0.2 5.8 0.5 0.6 0.5	2.2 4.0 0.1 5.4 0.7 0.1 0.4	1.4 2.7 0.3 1.2 0.3 0.2 0.3	1.7 2.0 0.5 0.1 0.9 0.1 0.4	1.6 2.0 0.6 0.1 1.4 0.2 0.5 1.1
한국	화학 철강 사무용기기 영상기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과학광학기기	3.2 1.5 0.6 0.0 2.2 0.0 0.5	2.5 1.8 0.4 0.1 2.0 0.0 0.6	2.0 1.9 0.3 0.1 1.1 0.0 1.2	2.1 2.6 0.4 0.2 1.9 0.0 1.1	1.9 2.8 0.5 0.5 1.8 0.0 0.6 1.5
대만	화학 철강 사무용기기 영상기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과학광학기기	2.9 1.3 0.6 0.0 3.3 0.1 0.0 2.2	2.2 1.7 0.6 1.4 2.2 0.1 0.0 2.5	2.0 1.8 0.6 0.2 1.9 0.1 0.9 2.1	1.9 1.5 1.1 0.2 1.3 0.1 0.7 1.8	1.9 1.2 0.9 0.3 1.5 0.1 0.5 2.8
홍콩	화학 철강 사무용기기 영상기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과학광학기기	1.1 0.6 0.7 1.3 2.4 0.3 1.2	1.2 0.8 0.6 2.6 1.6 0.2 0.9	1.2 1.1 0.5 2.6 1.3 0.3 0.8	1.3 1.3 0.6 1.4 2.0 0.2 1.0	1.0 0.8 0.9 1.3 2.3 0.1 1.5
태국	화학 철강 사무용기기 영상기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과학광학기기	3.0 2.2 0.3 0.2 0.4 0.8 0.4	1.4 2.6 0.2 0.2 0.6 0.3 0.3	1.2 2.3 0.3 0.1 0.8 0.4 1.5	1.4 3.1 0.5 0.1 1.7 0.3 1.6	1.1 2.6 0.4 0.2 2.0 0.3 1.6 0.5
싱가포르	화학 철강 사무용기기 영상기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과학광학기기	1.1 1.0 0.7 1.0 3.1 0.1 0.7	0.9 1.3 0.7 1.6 2.6 0.2 0.6	0.8 1.0 1.0 1.3 2.7 0.2 0.6	0.8 1.0 1.4 0.9 2.8 0.2 0.7	0.8 0.9 1.3 0.8 2.6 0.3 0.8
독일	화학 철강 사무용기기 영상기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과학광학기기	0.9 0.1 2.4 0.7 2.2 0.8 2.8	0.8 0.1 1.8 1.3 1.1 1.2 2.3	0.8 0.1 2.0 1.2 1.1 1.4 0.3	0.7 1.1 1.8 1.7 0.9 1.0 1.8	0.8 0.1 1.3 2.3 0.9 0.8 0.5 1.5
미국	화학 철강 사무용기기 영상기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과학광학기기	0.5 0.6 1.4 0.5 0.8 1.5 0.0 1.1	0.5 0.6 1.6 0.4 0.9 1.4 0.0 1.1	0.6 0.3 1.7 1.3 0.9 1.5 1.5 1.3	0.6 0.4 1.3 1.6 0.6 1.6 1.5 1.2	0.6 0.2 1.3 0.4 1.3 1.8 1.5 0.8

주: 특정수출상품 편중도 = (일본수출중 특정부품 해당국 수출액/특정부품 일본총수출액)/
(특정국가 대상 일본 수출액/일본총수출액)

자료: 『日本統計年鑑』 각년도에서 구성

나오고 있으며, 독일은 과학광학기에서 다소 높은 편중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상의 검토에서 우리는 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의 무역구조가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핵심부품을 수입해 조립·가공하여 수출하는 동아시아의 무역구조와 점차 동형화해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물론 일본의 대 중국 투자의 직접적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1980년대 후반 주로 홍콩자본의 중국 투자에 따라 동아시아 내 국제분업구조의 최하층 파트너로 편입된 단계로부터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일본 뿐 아니라 대만과 한국 등 동아시아 내 중요한 생산기지들의 산업이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중국의 무역구조가 한 단계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표 7> 일본의 중국수입 상품 구성

(단위: %)

	1985	1990	1995	1999	2002
식료품	14.2	16.0	13.0	12.3	9.5
원료	12.6	8.8	3.8	2.9	2.0
광물성연료	45.9	23.9	5.8	3.2	3.3
화학제품	4.6	5.4	3.7	3.1	2.9
섬유제품	14.9	26.7	34.6	30.6	25.6
금속 및 금속제품			6.0	3.6	3.6
기기기계	0.3	4.3	14.4	24.1	33.5
그 중 사무용기기			1.6	3.5	9.2
반도체전자제품			0.3	0.9	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日本統計年鑑』 각 연도에서 구성.

다음으로 일본의 대 중국 수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표 7은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상품들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면 일본의 대중수출보다 오히려 수입 쪽의 변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비중이 하락한 것을 보면 광물성연료와 원료의 수입비중이 대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비중이 늘어난 것은 섬유제품과 기계기기이다. 이 두 부문을 합하면 60% 가까이 되어 최근의 중국의 대일 수

출의 주도적 분야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과 표 9는 앞과 같은 방식으로 일본의 대중 수입상품의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보면 섬유제품의 편중도가 대단히 높음에 비해서 기계기기의 편중도는 높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섬유수입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기계기기의 경우는 대중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더라도 중국 이외의 여타 지역에서도 기계기기의 수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기기의 편중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계기기의 수입이 점점 더 중국에 집중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들어 처음으로 기계기기 수입이 섬유산업 수입을 앞질렀다는 것도 이런 추세를 시사해 준다. 현재 기계기기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무용기기의 수입이 중국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기계기기중 IT 관련 상품의 비중은 64.2%로 매우 높으며, 특히 컴퓨터 등 완성품의 비중이 높다(ジェトロ, 2003: 21).

<표 8> 일본의 주요 수입상품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1985	1990	1995	1999	2002
식료품	5.9	6.1	9.2	11.9	13.9
원료	4.5	7.1	4.2	5.6	6.2
광물성연료	5.3	5.1	3.9	2.7	3.1
화학제품	3.7	4.1	5.4	5.8	6.8
섬유제품	24.7	24.9	50.6	63.0	72.0
금속 및 금속제품			10.9	10.9	16.2
기계기기	0.1	1.3	6.1	10.6	19.3
그 중 사무용 기기			3.6	7.7	26.4
반도체 전자제품			0.9	2.8	4.4
총액	5.0	5.1	10.7	13.8	18.3

출처: 『日本統計年鑑』 각 연도에서 구성.

<표 9> 일본의 주요 중국 수입상품의 편중도

	1985	1990	1995	1999	2002
식료품	1.2	1.2	0.9	0.9	0.8
원료	0.9	1.4	0.4	0.4	0.3
광물성연료	1.1	1.0	0.4	0.2	0.2
화학제품	0.7	0.8	0.5	0.4	0.4
섬유제품	4.9	4.9	4.7	4.6	3.9
금속 및 금속제품			1.0	0.8	0.9
기계기기	0.0	0.2	0.6	0.8	1.1
그 중 사무용 기기			0.3	0.6	1.4
반도체 전자제품			0.1	0.2	0.2
총액	1.0	1.0	1.0	1.0	1.0

출처: 표 8에서 구성.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대 들어 중국경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빠른 새로운 단계적 변화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분업구조에 중국을 한걸음 더 편입시켜가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직접투자 면에서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 감소하던 일본의 대 중국 투자는 2000년대 들어서 빠르게 회복되어 1990년대 수준을 앞지르고 있고, 투자규모에서도 대형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이런 투자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완제품 판매보다는 중간재 부품 공급의 측면에서 강세를 띠고 있어, 중국은 일본자본의 제조업 생산기지의 성격을 강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일본 자본의 해외투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체하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신규투자 면에서만 동남아시아를 대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우리는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당분간 동남아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지속되면서 다만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증가는 무역구조 면에서도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일본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무역구조는 기존의 동아시아 모델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 일본의 대 중국 수출구조는 한국이나 대만과 유사한 형태의 핵심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한 대일의존을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핵심 부품을 공급받는 조립생산 기지의 특징을 정착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본의 대 중국 투자는 중국의 경제구조를 동아시아 국제분업구조에 편입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중국이 지닌 특수한 상황은 중국에서 이후 전개될 과정에 좀 더 복잡성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로 중국의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해외자본을 흡입하는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둘째로, 일본 뿐 아니라 각 중심부의 초국적자본의 투자가 이미 상당정도 진행되어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본 투자의 영향력이 동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로, 해외수출부문과 국유부문의 병존하면서 국가가 일정정도 발전국가적 특징이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투자국가가 많다는 점은 중국의 대외 교섭력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내의 중간규모 국가들의 자본투자 또한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의 편입 과정에 동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잘 드러나듯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 갈등의 요인들이 경제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백승욱. 1999. 「일본자본의 중국투자와 동아시아 경제」. 『경제와 사회』 42호. pp. 141-170.
- 馬黎明. 2003. 『当代日本与中日关系』. 天津社会科学院出版社.
- 岳健勇. 2001. 「外資與中國經濟增長-中國加入經濟全球化的國內經濟根源」. 『戰略與管理』 第4期.
- 王曙光. 2003. 「中国威胁论下的日本家电产业经营结构调整」. 『全球化下的中国与日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 69-84.

- 王振鎖·李鋼哲 主編. 2002. 『东亚区域经济合作: 中国与日本』. 天津人民出版社.
- 劉世錦. 2002. 「以扩大内需为重点加大结构调整力度」. 『中国发展研究 2002年版』. pp. 29-36.
- 刘昌黎. 2000. 「日本对华直接投资的减少及其重新增加的可能性」. 『现代日本』 第3期.
- 于潇. 2002. 「日本对华ODA政策调整的趋势及原因分析」. 『国际经济关系』 122. pp. 26-31.
- 张跃东·戚红过. 2001. 「日本对华贷款政策的变化及其影响」. 『日本研究』 第1期. pp. 34-40.
- 經濟産業省. 2003. 『通商白書 2003』.
- 經濟産業省. 2004. 『通商白書 2004』.
- 金山権. 2002. 「中國國有企業の當面課題と中國進出日本企業の經營行動」. 櫻美林大學産業研究所·北京師範大學經濟學院 編. 『21世紀, 日中經濟はどんなるか』. 學文社. pp. 334-350.
- 今井宏 外. 2003. 『21世紀アジア經濟』. 勁草書房.
- 度邊利夫. 2003. 『アジア經濟讀本』. 東洋經濟新報社.
- 大原盛樹. 1998. 「中國內陸部への外資進出と地域産業發展」. 石原享一編. 『中國經濟と外資』.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pp. 153-183.
- 木村福成·丸屋豊二郎·石川幸一 編著. 2002. 『東アジア國際分業と中國』. ジェトロ.
- 北眞收. 2004. 「中國市場を指向した共生型製造モデル—日中關係連携の摸索とマネジメント上の留意点」. 『開發金融研究所報』 第11號 (4月). pp. 21-44.
- 三谷正規. 2003. 『中國經濟 眞の實力』. 文藝春秋.
- 深尾京司. 2003. 「中國の産業·貿易構造と直接投資—中國經濟は日本の威脅か」. 伊藤元重·財務省財務綜合政策研究所 編. 『日中關係の經濟分析—空洞化論, 中國威脅論の誤解』. 東洋經濟新報社. pp. 21-56.
- 鈴木まゆみ. 2004. 「<解説> 2003年度わが國の對外直接投資動向(届出數字)」. 『開發金融研究所報』 第20號 (8月). pp. 92-112.
- 奥邨彰一. 1998. 「對中國國際援助の現狀と新しい動き」. 石原享一編. 『中國經濟と外資』.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pp. 39-68.
- 齊藤啓. 2003. 「2002年度わが國の對外直接投資動向(届出數字)」. 『開發金融研究所報』 第17號 (9月). pp. 4-22.
- ジェトロ. 2003. 『ジェトロ貿易投資白書 2003年版』. JETRO.
- 陳文泉. 1996. 『‘中華經濟圈’の胎動--‘三つの中國’の經濟關係を探る』. 東京: 溪水社.
- 丸上貴司·春日剛·齊藤啓·鈴木まゆみ. 2004. 『わが國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關する調査報告--2003年度 海外直接投資アンケート調査結果(第15回)』. 『開發金融研究所報』 第18 (2月). pp. 4-66.
- 『中國統計年鑑』 각 연도.
- 『日本統計年鑑』 각 연도.

- Arrighi, Giovanni, Satoshi Ikeda, and Alex Irwan. 1993. "The Rise of East Asia: One Miracle or Many?." in Palat, Ravi Arvind (ed.). *Pacific-Asia and the Future of the World-System*. Greenwood Press.
- Burkett, Paul and Martin Hart-Landsberg. 2000. *Development, Crisis, And Class Struggle: Learning From Japan and East Asia*. St. Martin's Press.
- Cassidy, John F. 2002. *Japanese Direct Investment in China*. Routledge.
- Chen, Edward K.Y. and Teresa Y.C. Wong. 1997. "Hong Kong: FDI and Trade Linkages in Manufacturing." in Dobson, Wendy and Chia Siow Yue (eds.). *Multinationals and East Asian Integration*.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 Chai, Joseph C.H., Y.Y. Kueh and Clement A. Tisdell (eds.). 1997. *China and the Asia Pacific Economy*. Commack: Nova Science Publishers.
- Delapierre, Michel and Christian Milelli. 1999. "Japanese Direct Investment in China: 'One Bed for Two Dreams'." in Dzever, Sam and Jacques Jaussaud (eds.). *China and India*. London: Macmillan Press. pp. 53-72.
- Hilpert, Hanns G. and René Hoak. 2002. *Japan and China: Cooperation, competition, and conflict*. Palgrave.
- Kojima, Kiyoshi. 1995. "Dynamics of Japanese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36(2).
- Lin, Huang. 1998. "A Comparison of Investment Strategies in China Between Japanese and American Firms." *China Newsletter* 136. JETRO.
- Lardy, Nic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Brookings Institute.
- Machado. 1995.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in Chan, Steve (e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 Changing Global Political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 Nolan, Peter. 2001. *China and the Global Economy*. Palgrave.
- Sawada, Yukari. 1998. "The Rise of Overseas Chinese Investment in China." in Kokubun Ryosei (ed.). *Challenges of China-Japan-U.S. Cooperati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hambaugh, David (ed.). 1995. *Greater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öderberg, Marie (ed.). 1996. *The Business of Japanese Foreign Aid*. London: Routledge.
- Taylor, Robert. 1996. *Greater China and Japan: Prospects for and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Routledge.
- UNCTAD. 2004. *World Investment Report: The Shift Towards Service*. UN.
- Zhang, Dong Dong. 1998. *China's Relations with Japan in an Era of Economic Liberalisation..* Commack: Nova Science Publishers, Inc.

Chang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Japan after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Seung-Wook Baek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increases since the early 2000s, Japanese FDI in China also increase rapidly. Since China becomes an important manufacturing site for Japan, Japanese investment in China concentrate on manufacturing sectors, and the scale of the investment is also expanding. Japanese investment in China, however, still does not replace its investment in ASEAN4 countries (Thailand, Malaysia, Indonesia, the Philippines). With growing Japanese FDI in China, the international trade between China and Japan is also expanding, and its structure is undergoing change. In the 2000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exports to China resemble those of Japanese exports to other East Asian countries in that those countri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sub-contracting manufacturing sites.

Key Words: China, Japan, Direct Investment, Trade, Degree of Export Concentration